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성탄 시기

부모는 율법 교사를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냈다
(루카 2,46)

| 미사 시간 | |
|-------|----------------|
| 미사 | 주일 11:00(본당) |
| | 주일 17:30(공소) |
| 평일 | 매주 (화) 20:00 |
| | 매월 첫 (목) 19:00 |
| 성모 신심 | 매월 첫 (토) 11:00 |
| 성시간 | 매월 첫 (목) 19:30 |

성사 일정

| | |
|------|-----------|
| 고해성사 | 미사 전, 후 |
| 견진성사 | 2 년에 1 회 |
| 유아세례 | 매월 마지막 주일 |
| 훈인성사 | 6 개월 전 면담 |
| 병자성사 | 병환 중/임종 전 |

교리 시간

| | |
|--------|---------------|
| 예비자 교리 | 주일 10:00, 대월실 |
| 견진 교리 | |

신심 단체

| | |
|--------------|--------------------|
| 자비의 모후 Cu | 매월 2 주 미사 후 |
| 샛별 Pr. | 매주 주일 9:30 |
| 평화의 모후 Pr. | 매주 화요일 18:30 |
| 천상의 어머니 Pr. | 매주 화요일 11:00 |
| 사랑하울 어머니 Pr. | 매주 화요일 18:50 |
| 바느 성모 기도회 | 매월 1,3 주 (토) 10:00 |
| 율뜨레아 |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현(10/25기준) 적립금액(\$76,263)**

*주소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 ▶ 12/29(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본당 11:00, 공소 17:30)
- ▶ 12/31(화) 미사는 없습니다.
- ▶ 2025 1/1(수)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본당 11:00)
- ▶ 2025 1/4(토) 성모 신심 미사 (본당 11:00)
- ▶ 2025 1/5(일) 주님 공현 대축일 (본당 11:00, 공소 17:30)

◎2025년 현금 봉투

복도 테이블에 2025년 현금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금봉투가 없거나 현금 봉투에 대해서 의문사항은 재정분과장 하태성 베드로 형제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1) 전례 봉사자

- ▶ 해설 이인선 챈마
- 복사: 송찬 아론, 이지민 이사벨라, 최아현 베로니카,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강지원 요안나 2 독서: 이은영 헐데가르트
봉헌자: 박규혜 카타리나, 강영희 스콜라스티카

◎성탄 구유 예물

성탄 구유 예물(\$1310)은 공지한대로 ACN(교황청 설립 국제조직) 통해서 레바논에 있는 가난한 교회로 보낼 예정입니다. 봉헌해 주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는 율법 교사를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냈다
(루카 2,46)

◎ 꽃동네 의류 도네이션

겨울용 의류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도네이션 품목은 김한욱 에릭 선교분과장님과 확인 후 복도 벤치에 있는 상자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1.1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후에는 성모회에서 떡국을 준비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소 소식

- ▶ 12/29(일) 오늘 미사 후 친교 식사는 없습니다.
- ▶ 12/31(화) 송년미사 7:00 PM
(미사 후 김대하 요한 신부님 사제 서품/영명축일 기념 파티)

단체 소식

- ▶ 율뜨레아
일시 및 장소: 1/9(목) 미사와 성시간 이후, 친교실
- ▶ 꾸리아
일시 및 장소: 1/12 (일) 13:00 하상실.

구역모임 (소식)

- 1 구역: 1/26(일) 14:00 친교실
- 2 구역: 미정
- 3 구역: 1/18(토) 12:00 강영희 스콜라스티카 자매님
- 4 구역: 1/18(토) 18:00 황창환 알비노 형제님
- 5 구역: 1/18(토) 17:00 채병두 베네딕도 형제님
- 6 구역: 1/18(토) 17:00 신철호 시몬 형제님
- 7 구역: 1/25(토) 18:00 최용욱 에드몬드 형제님

친교 식사

12/29: 오늘 친교 식사는 없습니다.
2025.1.1: 성모회(떡국) 2025.1.5: 5 구역 1/12: 6 구역

우리들의 정성

|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39 명) | | | |
|-------------------------|--------|------|------|
| 주일현금 | \$1490 | 교무금 | \$5 |
| 감사현금 | \$130 | 성전건립 | \$40 |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 성가대
(민연환 데레사, 강영희 스콜라스티카)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임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1 월 축일자 명단(13 명)
 - 1/1 마리아(신낙홍, 황기영)
 - 1/5 시메온(한기종)
 - 1/17 안토니오(권이용)
 - 1/19 비아(임연신)
 - 1/20 세巴斯찬(신용우), 세바스티아노(김창욱)
파비아노(이준환)
 - 1/21 아네스(백아네스, 김지현, 이미란)
 - 1/25 바오로(이종수)
 - 1/28 올리비아(최은)

전례봉사자

| 날짜 | 해설 | 복사 | 독서자 | 봉헌자 |
|-------|--------------|-------------------------------------|----------------------------------|---------------------|
| 12/29 | 임연신 비아 | 이준서 사도요한 송찬 아론 | 1 독서: 신낙홍 마리아 2 독서: 권희진 요안나 | 강지원 요안나 박규혜 카타리나 |
| 1/ 5 | 이은영 힐데가르트 | 유세진 라파엘, 최다희 보나 최다혜 플로라, 유서진 다니엘 | 1 독서: 김한욱 에릭 2 독서: 채정희 올리비아 | 신낙홍 마리아 권희진 요안나 |
| 1/12 | 박규혜 카타리나 | 이준서 사도요한 이지민 이사벨라 | 1 독서: 이은영 힐데가르트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 김한욱 에릭 채정희 올리비아 |

모든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최재현 베드로 신부
선교사목국장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한 주간을 '가정 성화 주간'으로 지내면서 성가정을 본받고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합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창세 2,22.24 참조)는 말씀에서 남녀의 만남과 가정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남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누군가의 주선으로 혹은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지만,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하느님이 두 사람을 지으셨고 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남녀의 만남은 하느님의 섭리와 손길로 이루어졌기에, 두 사람은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후 혼인으로 한 몸이 되고,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룹니다. 부부는 한 가정의 주체로서 행동하고 결정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가정을 지킵니다. 나자렛 성 가정은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고통과 절망, 기쁨과 행복을 하느님께 맡기고 기도로써 하느님과 함께 했기에 복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좋은 집이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조이스 메이나드)는 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독서는 '부모 공경'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영적 유익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집회 3,3)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하지 않으니 네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집회 3,14) 둘째는 '내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집회 3,5)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의 첫째 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도 남편에게 존중하고, 남편들도 아내를 존중하며 이해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가로막히지 않습니다."(1베드 3,1.7 참조) 부모 공경과 부부 사랑에는 영적 유익이 있으니, 내 죄를 용서받고 나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할 것이 있다면, 부모님과 배우자를 향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라셨고, 그런 사람과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제2독서 말씀처럼 용서와 사랑과 순종으로 모든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고, 복된 가정 만들어가시길 기도합니다.



St. Peter Yu Catholic Church /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환대와 경청의 해

2024 사목지침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2024. 12. 29.)

제 1 독서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3,2-6.12-14

화답송 시편 128(127), 1-2.3.4-5(◎ 1)



후렴. 행복 하여 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헛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2-21

복음 환호송 콜로 3,15.16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1-52